

'핵 타선' 변신한 삼성... 올해 일 내겠네

지난해 70타점 이상 5명 포진
디아즈·구자욱에 최형우 가세
10개 구단 최다 불방망이 타선
통합우승 LG 못지않은 화력
벌써부터 견제 대상 1호 꼽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2026시즌 타선은 무시무시하다.

지난해 70타점 이상을 올린 선수만 5명이 포진한다.

2025시즌 50홈런을 친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158타점)를 필두로 구자욱(96타점), 김영웅(72타점), 강민호(71타점)에 '돌아온 이적생' 최형우(86타점)가 가세했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지난해 70타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 5명 이상을 보유한 구단은 삼성뿐이다.

주변에선 삼성의 파괴력이 지난해 통합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못지않다고 평가한다.

염경엽 LG 감독은 최근 구단 신년 인사회에서 최재진에게 우승 경쟁 팀으로 삼성을 꼽으면서 "타선은 우리 팀 이상의 전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사자 군단의 화력은 벌써 다른 팀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은 타선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

해결 능력을 갖춘 중심 타자들은 장타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하고, 이들에게 '밥상'을 차릴 선수들은 출루에 초점을 맞춘다.

하위 타선의 핵심인 주전 2루수 류지혁도 변신했다.

그는 최근 식이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으로 약 7kg의 몸무게를 감량했다.

류지혁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재진과 만나 "최근 최형우 선배가 합류하면서 우리

팀에 장타를 칠 선수가 많아 졌다"며



지난해 10월22일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4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7대 4 승리를 거둔 삼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내 역할에 대해 고민했고, 홈런보다는 출루와 주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시즌엔 좀 더 열심히 뛰어나는 허슬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며 "스프링캠프에선 3kg 정도 추가 감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가벼운 몸

을 겨울 7kg을 감량한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류지혁이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프링캠프 출구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으로 새 시즌을 시작하는 건 (7년 전인) 두산 베어스 소속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류지혁은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했고, 2023년엔 팀 내 가장 많은 22개의 도루에 성공했다.

그가 가벼운 몸으로 출루와 주루에 집중하면 중심 타자들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 출루 능력이 좋은 선수도 많다.

지난 시즌 KBO리그 출루율 전체 2위에 오른 김성윤을 비롯해 김지찬, 이재현 등 테이블세터 역할을 할 선수가 차고 넘친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박진만 삼성 감독은 선발 라인업 결정을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한다.

삼성은 새 시즌 테이블 세터에 김지찬과 김성윤, 중심 타선에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최형우, 하위 타순에 이재현과 강민호, 류지혁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에 지난 시즌 쓸쓸한 활약을 펼친 외야수 박승규, 2024시즌 22홈런을 친 외야수 이성규 등 든든한 백업 선수들도 많다.

삼성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3월28일에 열리는 2026시즌 개막전을 기다린다.

글·사진·연습뉴스

은퇴한 커쇼, WBC 뛰다

미국대표선수로 합류 발표
컵스 입단 브레그먼도 참가

2025시즌이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 은퇴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특급 투수 클레이턴 커쇼(사진)가 마운드에 복귀한다.

MLB는 16일(한국시간) 커쇼가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미국 대표선수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커쇼는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실시되는 특급 스타 출신이다.

2008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데뷔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커쇼는 통산 223승 96패, 평균자책점 2.53, 탈삼진 3052개를 기록했다. 내셔널리그(NL)에서 사이영상 세 차례, 최우수선수(MVP)로도 한 차례 뽑힌 커쇼는 올스타전에는 11번이나 출전했다.

커쇼는 2023년에도 WBC 참가를 희망했으나 당시 부상을 우려한 보험사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불발됐다.

메이저리그에서 공식 은퇴한 뒤 WBC에 출전하게 된 커쇼는 "처음 마크 데로사 감독의 전화를 받았을 때 코치로 오라는 줄 알았다"며 "공을 새로 잡은 지 10여일쯤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대표팀 마운드의 '보함'이 될 것"이라며 "팀 사정상 필요하면 던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벤치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 WBC 대표팀에는 특급 3루수도 합류했다.

최근 시카고 컵스와 1억7500만 달러(약 2555억 원)에 5년 계약을 맺은 알렉스 브레그먼(31)은 입단 기자회견장에서 WBC 출전 의사를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을 뛴 브레그먼은 통산 타율 0.272, 209홈런, 725타점을 기록했다.

2025시즌은 보스턴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114경기에서 타율 0.272, 18홈런, 62타점을 찍었다.

브레그먼은 미국이 유일하게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 WBC 결승전에 대표팀 최연소 선수로 출전했다.

미국대표팀은 커쇼와 브레그먼이 합류하면서 전력에 더욱 강화됐다.

특급스타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주장 맡은 미국은 2025년 양 리그 사이영상 투수인 테릭 스쿠벌(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마운드를 지키는 등 '드림팀'을 구성해 WBC 정상 탈환을 준비하고 있다.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